

<2012년 7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반복) <성자 재림시대>는 하나님 창조 목적 실현 시대다.

1.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육과 영은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여 늙고 끝나는 격과 같다.
2.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 육의 행실을 영이 받아 영도 영원히 하나님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3. 성자 주님을 믿기만 해도 안 된다. 좋아만 해도 안 된다.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해도 안 된다. 그의 목적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자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신랑으로 맞고 그의 신부가 되어 살아야 창조 목적을 이룬 자가 된다. 그런 자의 영만 휴거의 영이 된다.
4. 기도 시간에 조건적 기도만 해도 안 된다. 기도 시간에 성자 주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을 주님과 대화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책임을 해야 할 기도를 해야 된다.
5. 마음을 비우고 사랑의 주체에 따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라.
6. 성자 주님과 얼마나 사랑하며, 성자 주님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며 사느냐에 따라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차원이 달라 그에 따른 위치가 정해져 살게 된다.
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137억 년 이상의 긴 시간을 들여 천지 만물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한 목적을 꼭 이루고 마신다. 그 목적은 인간의 육이 하나님과 성자께서 보내신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전능자를 믿고 그가 보내신 성자를 믿어야 알게

된다. 오직 성자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에 땅의 사명자도 알게 된다.

8.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 루시엘은 그 뜻을 반대했다. 이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기 때문이었다.

9.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비유> 어떤 왕이 자기 후궁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사랑의 만족을 못 하니, 다른 사랑의 대상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후궁들 중의 한 명이 반대한 것이다. 결국 그 후궁을 궁에서 쫓아내고, 뜻한 대로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궁에서 쫓겨난 자가 이를 알고, 왕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자를 속이고 거짓말하여 사랑이 깨지게 했다. 왕이 이를 알고, 궁에서 쫓겨난 자를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그 말을 듣고 속고 사랑을 깨뜨린 자도 왕비가 될 것인데, 형벌로 인하여 인생이 끝나게 됐다.

11.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반대한 천사가 변질되어 극렬한 사탄이 되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막고 고통을 주고 해를 주었다. 사탄은 쓸 데는 쓰고, 그 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다.

12.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다가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변질된 영들이다.

13. 아예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은 자들의 영들이 사탄에게 꺾여 악한 영이 되기도 했다.

14. 하나님을 벗어나 선과 악의 중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영들도 있다. 이

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따르는 주관자를 섬기며 산다.

15. 영계도 육계와 같다. 육계에서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 아무도 안 섬기고 자기만 섬기며 사는 자들도 있다. / 육신이 살 때까지는 그냥 놔두지만, 그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행위대로 그 영이 그 위치의 영계에 가야 된다. / 영의 세계에서도 영이 존재하는 기간이 있다. 그때까지 그냥 놔두고, 영의 행위에 따라 자꾸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서, 결국 뒤로 돌아 나오지 못하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으로 올 기회를 주신다. /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에 비할 수 없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계절 속에 식물들이 죽고 없어지듯이 결국 처리된다.

16. 지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복잡하다. 지구는 생명 공장이다. 지구 역사가 끝나야 영의 세계도 정리된다.

17. “하나님은 사탄을 왜 안 없애시지?” 하며, 하나님께 의문을 품지 말아라. 너만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사탄과 상관없다.

18. 양이 주인집 안에 들어가면 이리, 사자, 야수들이 몰려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인간도 하나님 품에 온전히 들어가면 사탄과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

19.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이 영원히 정리하신다. 예정해 놓으셨다. 지구상에서 사탄의 꾀를 받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의 영들도 그때 같이 심판하신다.

20. 전능자 하나님은 절대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 목적은 결단코 행하신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이끄신다. 이 시대에 마지막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목적을 밝히셨다. 누구든지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1.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모두 구약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았다. 고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셨다. 그래도 구약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고로 그들은 구약급 천국에 가 있다. / 같은 천국이라도 구약급 천국과 신약급 천국과 성약급 천국이 다 다르다. 한 나라의 같은 수도권에서 살아도 각자 삶의 차원이 다르듯 다 다르다. / 천국은 빛으로 가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는 상상도 못 하게 넓은 곳이다. 시대별로, 각자의 급수와 차원대로 위치를 정하여 살게 해 놓으셨다. 땅에서 육신이 어느 시대로 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며 행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영이 천국에서 사는 위치가 정해진다.